



이상호 비오 | KBS 아나운서

I 기도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

아침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.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. 생활의 활력소. 종일 주님 안에 머무름. 기쁨. 되어가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심. 꾸준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싶음. 그리고 나누고 싶음. (2017.05.23)

미사를 드리는 중에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무뎠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라고 간절히 청함. 세상의 빵으로 밥으로 살고 싶은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심. 감사함. 분명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들. 부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가오는지 두려움과 불안이 떨쳐버리는 것이,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 참 부활의 길이고 기쁨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. (2017.04.16)

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기도들입니다. 사실 매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도 이렇게 기도와 성찰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,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자칫 하루가 무기력과 분노, 그 밖에 부정적인 감정들로만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용히 깊이 민감하게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

다. 무엇보다 내 삶에 주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기도만 한 게 없습니다.

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제 자신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기도와 성찰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도구일 뿐 제 의지로,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 오로지 주님께서 저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저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.

저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합니다. 더 기쁘고 나은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

저는 기도와 성찰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맛 들였습니다. 그 사랑에의 초대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. 주님의 사랑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.

교리상식

대세는 어떻게 주나요?

전쟁 때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 등 사제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주는 세례를 대세라고 합니다. 대세를 줄 때는 가능한 한 증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, 세례를 준 사람은 자신이 대세를 준 사실을 빨리 본당에 알립니다. 세례를 베푸는 이는 깨끗한 물을 세례자의 이마에 부으면서 “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○○에게 세례를 줍니다”라고 합니다. 비상시에는 신자 누구나 세례 때 받은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고, 세례 받는 이의 상태에 따라 ‘임종 대세’와 ‘조건 대세’가 있습니다.

글 「교회상식 속풀이」 | 바오로딸 발행